

대구 주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17. 6. 25.(가해) 제2057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한핏줄 한민족임에도 서로 겨루고 지내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자비로운 주님의 크신 손길로 저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어 민족의 일치와 평화를 주소서. 다시금 동방의 빛이 되어 참 평화를 이끄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신명 30,1-5

제2독서 에페 4,29-5,2

복 음 마태 18,19-22.

화 답 송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통일의 시각, 동경(憧憬)



손헌기 모세 신부 | 대구결핵요양원 원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언제 적 노래인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최근엔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잠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비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계산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가슴에서도, 머리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잊혀져가는 우리의 가장 큰 불행한 현실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속제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두의 속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 여기에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의 우선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속제의 길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독일 등 몇몇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통일은 이루어졌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진정한 하나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도 아직 통일은 진행형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노력과 준비,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장벽들을 허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은 여전히 그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일의 진행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서독에 대한 동독인들의 ‘동경’이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삶의 부분에서 발전된 서독 사회에 대한 동경,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극한의 대치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미 시작되기도 했지만 신앙인인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러워할 삶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일치해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구하는 모습,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에까지 닿아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정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는 모습, 이것은 하느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일로 우리의 운명까지 되돌려 주실 정도의 것입니다. 이 정도면 향기롭고 동경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동경할 우리의 일을 시작합니다. **필문**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남북 분단 72년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며 유럽연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남북 대결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구속되었으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은 제각각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나, 남과 북은 분단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64년 정전체제 속에 냉전논리가 남과 북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냉전논리는 우리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냉전논리를 신앙에 우선하여 북한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들,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이들을 매도하거나 심지어 성직자들에게도 ‘종북’ 딱지를 스스럼없이 붙이기도 합니다. 긴 냉전의 시간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우리 삶을 위하여, 특히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한반도에 평화는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종식을 선포하고, 남과 북이 활발한 교류

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때, 경제적 동반성장과 더불어 통일의 그날도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교와 민간차원에서 남과 북이 활발한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마태 5,9 참조) 교우 여러분! 평화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내와 용기를 갖고 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시시오. 매일 저녁 9시,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모경을 함께 바칩시다. 2016년 춘

계 주교회의에서는 각 본당에 ‘민족화해분과’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평화운동을 각 본당 단위에서부터 적극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냉전논리에 젖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에제 36,26 참조)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교회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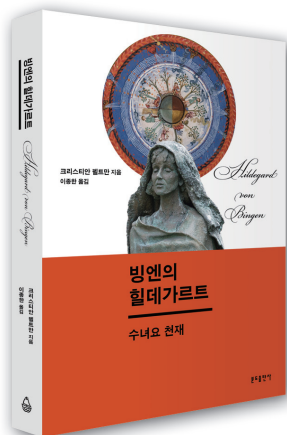
금년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발현 당시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묵주기도를 봉헌하라.” 하신 성모님 말씀은 분단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모시고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



빙엔의 힐데가르트

분도출판사



크리스티안 펠트만 지음 |
이종한 옮김 |
336면 | 16,000원

오랜만에 만난 한 수녀님께서 “우리 집에서 수녀님들이 만든 거예요.”하며 작은 약통을 하나 주셨다. 자주 뵙지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주시는 작은 선물에는 늘 수녀님의 고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약초 크림’이라고 적힌 노란 약통과 함께 안내서도 주셨다. 피부와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꼼꼼하게 쓰인 안내서에서 ‘힐데갈드 약초방’이라는 이름이 눈길을 끌었다. 힐데가르트 성녀에게서 유래한 약초를 이용한 차와 조리법, 자연 치료제가 독일에서 인기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익숙한 이름에 끌려 『빙엔의 힐데가르트』를 손에 들었다. 책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책을 읽으면서 든 첫 생각은 이랬다. ‘아뿔싸! 이렇게 엄청난 여성이었다니.’

힐데가르트 성녀는 고대에서 중세로 막 넘어가던 1098년에 태어났다. 성녀는 어릴 때부터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지만 숨기며 지내다 마흔셋의 나이에 환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분을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 동시에 수녀원 두 곳을 이끈 수녀원장, 시인, 음악가,

약초 채집가, 저술가, 신비가로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독일 최초의 여성 자연과학자이자 처방전을 쓴 여의사로서 이분의 전인적인 의술은 오늘날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 이 책은 힐데가르트 성녀의 일생을 상세히 다룬다. 그 옛날 온갖 약초와 식재료의 효능을 발견하고 정리했으며 이를 이용한 자연 치료법에 대한 내용은 흥미로웠다. 예를 들면, 삶은 보리쌀이 피부에 좋다는 것, 아마씨 진액이 화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 고급 포도주는 빵에 적서 먹거나 희석해 마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 등이다.

수녀원을 세운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12세기 당시 수녀원은 남성 수도원에 부속되어 있었고, 수녀들이 독자적으로 수녀원을 이끌어 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힐데가르트 성녀는 독립해 수녀원을 세우기로 한다. 남성 수도자들은 심하게 반발했다. 수녀원과의 재산 분할도 문제였지만, 힐데가르트의 명성이 높아지자 유럽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체 높은 사람들의 후원도 커졌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녀는 최초의 독립된 수녀원을 세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녀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수녀원을 세우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느님께 나아갔다.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과 사명을 거둬서 묻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단 있게 이루어 나갔다.

짧은 지면에 이 매력적인 인물에 대해 자세히 담지 못해 아쉽다. 책을 통해서라도 많은 이들이 담대한 여성,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아낀 생태학자, 아름다운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한 음악가, 치유하는 의사, 하느님과 교유한 신비가였던 놀라운 여성을 만나기를 바라본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인

하느님의 법

세상만물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변성하고 완성되기 위해 부여된 규범들이 있으니 이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덕의식인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타고난 양심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삶의 규범들과 직접적인 윤리 가르침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삶의 규범이 구약의 법(율법)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자연법의 중요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법으로서 인간이 깨쳐야 할 보편적 진리이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지켜

야 할 법으로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신약의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마태 5,17 참조).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새 법의 정신은 여덟 가지 ‘참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 설교(마태 5,3-12 참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지키라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총도 줍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법이 인간 삶의 규범으로 온전히 작동하려면 인간이 만든 ‘실정법’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국가법과 국제법 또한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인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는 교회가 정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 규범과 성사 생활에 관한 규율, 교회의 운영에 관한 규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하느님의 법인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교구장 동정



6.20(화) _ 성직주교위원회 및 총학장
간담회 (16시)

6.22(목) _ 증산 오토캠핑장 축복식 (16시)

총대리 동정



6.18(일) _ 황금성당 견진성사
(10시 30분)

교구 및 기관 행사

6.26(월) _ 제2기 청년국 해외봉사단 (7월 6일까지, 필리핀)

6.28(수) _ 평신도위원회 회의 (19시 30분, 교구청 별관 사목국)

6.29(목) _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 3주차 (19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6.30(금) _ 10차 비다누에바 연수 (7월 2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예수회 새 사제 첫 미사 · 첫 강복

오는 2017년 6월 28일 예수회에서 6분의 새 사제가 탄생합니다. 저희 대구대교구 출신인 3분 신부님의 첫 미사가 아래와 같이 거행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례	일시	장소
최준열(다미아노) 신부	7.2(일) 11:00	큰고개성당
조창모(시몬) 신부	7.1(토) 10:30	월성성당
박경웅(베드로) 신부	7.2(일) 10:30	대곡성당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한반도가 되기를 청하며 목주기도 1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 사 안 내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6월 26일(월) 10:00 수성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28일(수) 19:00 성의여고 경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26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6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6월 27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6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28일(수) 10:00 평화성당		6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기간: 6.30(금)~7.1(토)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주님의 숲, 살레시오 성소를 찾아서

기간: 7.7(금)~9(일)

장소: 살레시오수녀회 담양자연의집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참가비: 2만원 / 문의: (010)4983-0524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7.16 매월 셋째주 일 15:00

장소: 대구 계산서원 및 수녀원

(성소 상담 언제든지 가능)

문의: (010)3113-6219

hoe6219@hanmail.net

6월 한티 피정

기간: 7.8(토) 16:00~9(일) 13:00

주제: 그대 어디로 가는가(순례음악)

지도: 홍경혜, 홍승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7.1(토)~2(일) / 15(토)~16(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향심기도 일일 피정: 7.30(일)

문의: (010)5332-7587

여름 잔꽃송이 피정

기간: 7.15(토)~16(일) 1박 2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중·고등부 여학생

문의: (010)9286-2247

광주대교구 지리산 피아골피정집

2박 3일 여름휴가 피정

기간: 7.21~23 / 7.24~26 / 7.28~30

7.31~8.2 / 8.4~6 / 8.11~13

문의: 사무실, (061)782-5004

http://www.jpoph.net

교육 | 모집 | 기타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기간: 7.22(토)~23(일) 1박 2일

주제: Quality School 만들기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접수: (043)260-5076 / yangeob.hs.kr

입학전형 안내도 함께 합니다.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캠프

기간: 7.21(금)~23(일)

장소: 충남 태안 살레시오피정센터

대상: 중·고등학생 / 대학·일반(만33세)

참가비: 3만원

문의: (010)7427-4627 / (010)3894-1332

성요셉요양병원 입원 상담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말기암 전문요양

매일미사와 함께 영성치료

문의: 610-3645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공지능 '왓슨' 도입

지역최초 도입

미래형 메디케어의 선두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문의: 650-3436 / (010)6625-3119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7월 30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곽연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앞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팔리)
http://www.ksnose.com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장보고의료내과
원장 내과전문의 조재현(세례자요한)
위·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 · 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원은행 지점 건물 3층 (당구별대로 3218)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 421, 758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덕영(스테파노)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곡수(아네스) 010-5048-7739

가환 177호
백신경외과 의원
척추 · 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www.baekduclinic.co.kr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정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여게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행사 | 모임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6.26(월) 20:00

장소: 교구 가정사목국(대건관)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6560-3086

바느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6.29(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계산성당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7.1(토) 10:00

내용: 특강, 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서틀: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4번 출구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설명회

일시: 7.1(토) 14:00

대상: 본교 진학에 관심있는 학부모

문의: (054)338-0530

교육 | 모집

제3회 청소년 성지순례

기간: 8.7(월)~11(금)

장소: 일본 나가사키, 고토

대상: 중1~고3 청소년

경비: 약 100만원 / 마감: 6.30(금)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낙산묘원 묘주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비산성당, 564-1004

관덕정 영성 특강

일시: 7.1(토) 16:00

강사: 조명연(마태오) 신부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문의: 관덕정, 254-0151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2차 ME주말: 7.28(금) 19:00~30(일)

353차 ME주말: 8.4(금) 19:00~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수지에니어그램

상설과정: 매월 둘째주 토 10:00~17:00

심화과정: 수지에니어그램 Plus

청소년: 자기본질의 이해, 성격강점검사

가족수지, 소그룹 피정

문의: 남대영기념관 다음카페, 629-1117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 연주

기간: 7.12(수)~15(토), 가톨릭대 성심교정

주제: 미사전례와 성가 / 내용: 오르간, 그레고리오성가, 지휘, 성악, 작곡, CCM

강사: 최호영 신부 외 15명

연수비: 40만원 / 신청: (010)4513-7605

채용 | 안내

사) 빠스카교회복지회 사무원 채용

자격: 대구 북구 거주자,

워드 및 엑셀 사용가능자

소재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문의: (054)972-266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기(야고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대구가톨릭평화방송(FM 93.1) 7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분당 이야기 '분당순례: 우리분당은요' (홈페이지 다시 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7월 1일 사수분당	7월 8일 경산분당	7월 15일 대천분당	7월 22일 구평분당	7월 29일 봉덕분당
------------	------------	-------------	-------------	-------------

우리아이 아플때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 99병상 입원실 운영 * 성장클리닉 운영
* 편입 외래진료: 오전 9시 ~ 밤 11시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9시 ~ 밤 9시까지
대표전화 053)260-7777
서부정류장 환문시장 옆 (구.달성군청지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노루페인트
페인트도배남품, 건축내외부도장공사, 예목시, 방수공사,
컴퓨터조색, 전환경인테리어(펜트, 듀릭스 수입페인트)
☎ 583-7391, 010-3507-0744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58 (2호선 성서공단역~계명대역사이)
노루페인트인크사 이명익(팔림보) 이명익(소피아)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GARE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씨노비조타워 B108호

대구연세안과
· 백내장수술 · 아이디자인 라식
· 노안 수술 ·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 053)626-8881~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